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독일 문화정책과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Policies for the Privat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On the German Cultural Policy and Comparison from the View
 of Cultural Democracy

김 가 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박사과정)

Abstract

Ga-Hyun Kim

Although culture becomes a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interest in pure art is increasing, governmen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increasing support for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the traditional performances are mostly fre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supports for traditional art organizations as well as effective strategies allowing private traditional art organizations to strengthen its self sustain and its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the Cultural Policy of Germany.

First, a policy approach to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s needed at the local leve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 which is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and Germany, which is a federation, in terms of national operating system. However, their cultural federation has develope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raditional arts of each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ublic policy that can preserve and support traditional culture in the provinces.

Seco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which enables audience to meet their desire for enjoying performances and allows the Korean ethnic identity to be established is necessary. In the 21st century, there is a global trend that not only does the culture industr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uccess and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ies in each country but also the culture industry is boosted as the strategic industry.

Keywords: Korean classical music, traditional dance, traditional performance, Culture and Arts Policy, Cultural Democracy

I. 서 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70년대 한국식 산업화를 거쳐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개인의 삶과 질, 그리고 행복 수준은 향상되지 못했고 계층 간 양극화, 실업률,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등 사회적 문제와 계층 간 갈등을 야기 시켰다. 이에 사회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문화예술이 현 시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예술을 매개로 소통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통합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문화민주주의이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소외계층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로 참여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곽정연 외, 2017: 38).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종류의 문화예술은 문화수용자들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하는 한 고급문화이든 대중문화이든 모두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서순복, 2007: 32-33), 다문화, 비전문가, 역동성, 아마추어, 사회적 형평성, 변화, 과정(김경욱, 2003: 35)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에 있어 문화예술향유 기회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은 클래식, 미술·전시, 영화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는 매우 취약하고, 현재 전통공연의 대부분은 한국문화계승이라는 사명감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민간전통문화예술단체에 의하여 무료 공연 등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1) 특히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는 각 지방의 다양한 문화가 자발적으로 발전할 때 문화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문화예술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소외되어 있는 전통공연예술과 이 역할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한다. 특히,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는 공적·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위치와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선진적으로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문화정책과 비교분석하여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전통공연예술과 전통공연예술단체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서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와 「2015 국악연감」의 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위치와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을 정부지원, 민간지원, 전통공연예술 관련 제도적 기반, 분야별 정책 현황 별로 비교분석하고,

¹⁾ 전통공연예술에서 민간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90.1%로 거의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해 전통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다.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1. 이론적 논의

1) 문화민주주의

서구 문화정책 이론가들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 민주화가 기존의 비평가나 예술가들에게 이미 인정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공예술 기관²⁾에서 공연되는 전통적 형식의 고급예술만을 예술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예술 에 일반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문화민주주의는 흔히 전통예술로 분 류되는 고급예술뿐만 아니라, 지방예술, 실험예술, 대중예술까지 모두 예술에 포함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 한다. 초기에는 정형화된 틀이 없이 예술기관이 공연장에서 공연되지 않은 문화예술 활동이었으나, 점차로 성장하게 되어 나름대로의 틀을 형성하고 제도 권에도 진입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엘리트에 의한 질적으로 성 숙된 작업뿐만 아니라. 예술작업에 아마추어나 전문가의 경계보다는 예술에 대한 참여와 경험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곽정연 외(2015: 379)는 "문화민주주의는 소외 계층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를 구 성하는데 능동적인 주체가 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를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문화예술의 생산 과 향유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화민주주의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예술의 경영이 정부주도에서 전문적인 기관 주도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기관이 자생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통공연예술의 개념

전통공연예술의 사전적 개념3)을 살펴보면 먼저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 관습 · 행동 따위의 양식"이며, 다

²⁾ 김경욱(2003)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그 예로 들었다.

³⁾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음으로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마지막으로 '예술'은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따위로 나눌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법적 개념으로 살펴보면 전통공연예술진흥법4안 제1장 제2조에서 "전통공연예술"을 우리민 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으로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戱) 등 소리와 몸짓을 주 된 요소로 하는 예술행위 및 그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연 희(한민족의 전통적인 악, 가, 무, 재담, 몸짓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무당굿,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광대극, 줄타기, 택견, 곡예 등 일체의 연극적인 예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즉, 전통공연예술이란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대에 이루어져 전해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보여지는 음악, 무용, 연희(연극 등을 포함) 활동 또는 작품으로, 공간·시간·종합 예술"을 말한다.

3) 전통공연예술단체의 개념

용호성(2010: 9-10)은 예술 조직을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예술단체, 기타 조직으로 분류하 고. 특히 예술단체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기 위하여 구성한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다. 김명호(2016: 21)는 전통공연예술단체란 전통공연예술 관련 예술가들이 무리지어 조직을 이루 어 활동하는 것으로 일정한 나름대로 규율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통공연예술단체는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이 정의하는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에 따라, 우리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으로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을 공연하는 단체로 정의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대에 이루어져 전해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음 악, 무용, 연희(연극 등을 포함) 활동 또는 작품으로, 공간·시간·종합 예술을 공연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전통공연 진흥, 문화예술 활성화, 민간지원 및 메세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전통 공연 진흥에 관한 연구로 전병태(2011), 한만주(2011), 박금비(2012), 박현승(2015), 김규원

⁴⁾ 김정순(2009)는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최근「 헌법」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필요성을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예로 아시아뉴스통신(2017)."김병욱 의 원, 국악발전 토론회 마련(2017.12.20.)", 서울문화투데이(2017). "[김승국의 국악담론]전통공연예술진 흥법 제정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 (2017.06.05.), 매일경제(2017). "[유재웅 칼럼]전통공연예술 진흥법 제정 시급하다"(2017.04.11) 등 있다.

(2016), 김시범(201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전통공연 지원정책과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관련 법규에 대해 고찰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는 서광 (2008), 이동수(2010), 최미숙(2012), 이주희(2017), 정종은·김현경(2017)의 연구를 들 수 있으 며, 문화예술 정책 활성화, 재원 확보,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공공단체와 민간 단체의 구분 없이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김이경(2008), 박민생(2009), 이주현 (2010), 손민경(2011), 배소윤(2017) 등의 민간지원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메세나 현 황, 메세나에 관한 기업의 인식, 메세나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 이에 기업 지원의 세제혜택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제시하지 못한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민 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성 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 1〉 선행연구 검토

구분	제목	연구자	소속지	발행연도
전통 공연 진흥	국악진흥 발전방안 연구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연구 -문화예술진흥법과 비교 하여-	한만주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전통예술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금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공연예술 참여의 동기와 제약 -전통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접근-	박현승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고찰	김시범	유라시아연구	2016
문화 예술 활성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서광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한국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진흥방 안 연구	이동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문화예술의 가치 및 효과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 심 의기준 및 평가기법 연구	최미숙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한국 문화예술지원 유형에 따른 무용공연예술의 발전 방안 연구	이주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정종은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민간 지원 및 메세나	문화예술단체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한 메세 나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이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8
	기업 메세나 활동의 동기와 효과에 관한 고찰	박민생	경영정보연구	2009
	메세나 활동이 기업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통음악극과 대중음악극을 중심으로-	손민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기업 메세나의 예술지원 현황 및 예술후원 제도화 방안 연구	이주현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1
	예술지원 매칭펀드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메세나협회 사업을 중심으로-	배소윤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2017

3. 분석의 틀

문화체육관광부(2016)의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공연예술 단체 중 민간단체(90.1%)가 국공립단체(9.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술, 전시, 클래식 공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현실에서 전통공연은 대중에게 소외받고 있어, 다문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전통공연, 특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 전통공연예술단체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현황',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독일 문화정책과 비교 및 문제점 분석',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전통공연예술 지원 방안', '결과의 함의'를 중심으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범위와 진행방법을 서술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문화민주주의와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밝히고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며 분석의 틀을 확립한다.

3장에서는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현황 분석을 통해 단체의 비중, 생성연도, 지역별 분포를 정리하여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현황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문화민주주의 측면에서 독일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에 대한 자발적 참여, 역동성, 지방의 역할 등이 고려되고 있다.

5장에서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보호,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확보를 중심으로 전통공연예술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주제를 제안한다.

Ⅲ.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현황

1.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비중과 역할

전통문화예술단체의 활동 및 공연 장르는 국악과 무용으로 나뉘어진다. 5) 국악은 연희, 풍물, 민속 등의 단체가 포함되고, 무용은 전통무용, 한국무용 등 전통공연예술 유관 무용단체를 포함한다.

^{5)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와「2015 국악연감」의 조사기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단체는 총 820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국공립(전통공연)예술단체는 81개,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는 739개로 추정되어, 전통공연예술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0.1%가 민간단체이다. 활동 및 공연 장르별로 살펴보면, 국악이 758개 중 702개(92.6%)를 차 지하고. 무용이 62개 중 37개(59.7%)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는 국악(연희. 풍 물, 민속 등)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는 국악분야 전통공연예술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공연예술단체의 설립주체는 임의단체이가 차지하는 비율 (69.6%)이 대부분이다.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현황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국공립단체보다는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2.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생성연도 및 지역별 분포

민간공연예술단체로서 고산농악보존회가 1943년 최초로 설립되었고, 이후 사단법인 한국정 악원フ)(1947)과 함안화천농악보존회(1947)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는 경제발전이 우선시되었고 서구의 무분별한 문화예술 도입으로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전체 민간공연예술단체 중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창단된 단체가 7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현대성이다. 대부분의 생성시기가 1990년대 이후일 정도로 생성시기 현재와 가까운데, 이는 전공자들의 증가도 그 영향이 있겠지만, 많은 수의 아 마추어의 참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전통을 보전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공립단체 에 비하여 비교적 는 다양한 장르 연계하여 전통공연예술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유추해석 할 수 있다.

민간공연예술단체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200), 경기(110), 경남(70)순으로 많이 분 포하고 있다. 비록 문화의 수요와 공급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유리한 조건 때문에 지역별로 일부지역에 보다 많은 분포하고 있지만, 지역적 산포역시도 공공단체보다는 보다 넓게 분포하 고 있어 지역적 다양성도 보여주고 있다.

3.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현황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는 문화민주주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는 데, 독일의 문화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무엇보다 독일은 공적지원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곽정연,

⁶⁾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미등록단체

⁷⁾ 조선정악전습소의 후신

2016: 19). 또한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문화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발전과 진화를 추진하며, 일반지원, 국제교류지원, 소수문화 지원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경쟁력이 취약한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독일의 문화정책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 방향에 기초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자 한다.

Ⅳ.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독일 문화정책과 비교 및 문제점 분석

1.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독일 문화 정책

문화민주주의 측면에서 독일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에 대한 자발적 참여, 역동성, 지방의 역할 등을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무엇보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

문화정책이란 좁은 의미에서 예술영역(음악, 미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등〉, 문학)에 대한 국가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정책은 사회적인 관계들의 모든 형식(언어교육, 종교정책, 사회복지 등)을 다 포함되는데, 독일에서의 문화라는 개념은 넓은 개념에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은「기본법」제5조 3항에 "예술, 학문, 연구, 교육은 자유롭다. Kunst und Wissenschaft, Forschung und Lehre sind frei."(Deutscher Bundestag, 2007)고 명시되어 있다. 기본법으로써 독일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 자유를 지방정부인 베를린시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베를린 시 홈페이지에 보면 60개의 정책에 대한 기조를 설정하고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3항®과 4항®이 문화에 대한 베르린 시의 입장이다. 베르린 정부는

^{8) 3.} 보다 확실한 문화의 전망 제시

문화는 우리 도시의 본질적인 미래의 자본이다. 베를린이 문화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우리 독일 명성을 위해 결정적이다. 시의회는 우선 문화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위원회는 현재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미래의 중요한 사안을 제시한다. 어떤 도시도 베를린과 같이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없으므로 시의회는 이런 전통 보존과 다음 세대로의 전승에 의무 감을 가져야 하고 국립극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사설극장의 공연을 위한 다년간 지원 신청들을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세 개의 오페라하우스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베를린 정부의 재정 상태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립 오페라단은 전통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의 수준이고 베를린 현대무용단도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 베를린은 이들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베를린 박물관들은 지위가 강화되어야 한다.

3번에서 베르린의 명성에 걸맞는 기관들을 잘 보존하고 대표기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 여주고 있으며, 4번에서는 젊은이들의 문화교육과 참여 촉진을 통해 정체성확립과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안정오, 2011: 70-72).

독일은 문화를 사회적인 관계들의 모든 형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베르린 시의 정책 기조에도 문화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 및 문화에 대한 접근이 다른 점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2) 공공의 지원

일반적으로 공적지원을 직접지원과 세제해택 등과 같이 예술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인프라 를 형성해주는 간접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지원의 오랜 전통을 가진 독일에서는 미국이 나 영국 등 다른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공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원은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곽정연, 2016: 14). 또한 중앙집권제인 우리나라와 연방주의인 독일 은 국가 운영체제부터 차이점이 있어. 그들의 문화 연방제는 각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 예술을 발달하게 했다.

(1) 일반 지원

① 베르린 예술가 지원

베르린 시의회 문화부의 지원분과는 예술가들이 베르린에서 작업이 어렵지 않게 하는데 목 적을 둔다. 이 지워프로그램에는 베르린에 사는 모든 예술가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지원이 있는데 예술가들의 프로젝트 지원과 연구생활 지원이다. 프 로젝트 지원은 연극, 콘서트와 같은 공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지향하고 연구생활 지원은 외국의 지원금, 작업수행 지원금과 같은 여러 종류가 있다(안정오, 2011: 77).

② 공연예술 지원

베를린에는 현재 300개의 극장이 존재하는 등 오페라 공연장, 극장, 발레 공연장을 비롯한 수많은 춤 공연장이 있다. 베를린 시 의회는 공연장에 매년 9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4백만 유로는 연구에 대한 지워. 5백만 유로는 개별 프로젝트 및 공연장에 관한 지원에 쓰이

^{9) 4.} 문화 참여의 확보

문화는 개인은 물론 사회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기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르린 젊은이들이 -사회적, 인 종적 배경과 무관하게- 우리 문화에 기밀하게 참여하도록 하려 한다. 우리는 공공박물관과 도서관에 어 린이와 젊은이를 위해 할인입장을 허락하여 문화에 호기심과 자극을 불러 넣어야 한다. 시의회는 문화교 육과 문화참여의 전반적인 구상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은 통합을 위한 기본 조건이고 수단이다. 그래서 이 문화교육은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http://www.berlin.de/pressemitteilungen/ archiv/Dokumentation에 있는 'ichtlinien der Regierungspolitik 2006-2011'3항과 4항 참조.

고 있다. 이 지원정책은 극장과 공연그룹을 일정기간 지원하여 발전시키는 지원정책 (Kozeptförderung)과 프로젝트 지원(Projektförderung)이 있다.

(2) 국제교류 지원

① 상호 문화적 지원

베를린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된 도시이다. 이에 문화 상호적 능력의 발전과 문화재에 외국이주자들의 참여가 베를린 시의회의 중요한 테마이다. 1979년 처음으로 '외국 이주자의 문화적 활동 지원(Förderung Kultureller Aktivitäten ausländischer Mitbürger)'을 시작하여 이민 자들의 문화 정체성을 다문화적 사회에서 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오늘날 상호문화적인 소통과 다문화적 예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안정오, 2011: 79).

② 국제적 문화교류 지원

예술과 문화의 도시인 베를린은 국제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이다. 이에 외국의 연구소나 문화기관들이 베를린과 교류를 원하며, 실제 수많은 교류 프로그램이 베를린, 연방정부, 지방정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위해 베를린은 759천 유로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안정오, 2011: 79-80).

(3) 소수문화 지원

베를린은 소수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여류예술가 지원, 음악 지원, 합창단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여류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1992년부터 시의회 결정으로 여류예술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단순히 여류예술가들의 비율을 늘리는데 주력했지만, 현재는 여성들이 언제나 열세에 있는 예술적 분야를 지원하는 데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음악지원은 고전음악과 세계음악에 지원되고 있다. 세계음악은 팝, 록, 유행가, 재즈, 민속음악, 상숑, 컨츄리 뮤직, 비트, 소울, 힙합, 펑크, 헤비메탈 등을 말한다. 비주류 음악에 지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전반적으로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은 공공지원은 공적지원 비중이 높고, 민간 자립도가 낮다. 그립스 극장은 기관지원 중 "부족액 자금조달"명목으로 총예산의 약 70%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곽정연 외, 2017: 156). 2015년 Haug/Wetzel, Matzk는 인터 뷰에서 자유공연팀은 주로 "프로젝트지원"을 받으며, 리미니 프로토콜과 쉬쉬팝은 2015년 공연을 위해 100% 공적지원을 받아 따로 스폰서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였다(곽정연, 2016: 15). 공적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독일 자국 내에서도

예술기관 재원조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공적지원 의존 비율을 낮추고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 단체의 자립도는 중요한 사항 이며, 우리나라 문화예술, 특히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자립과 자체적 진흥방안에 대해 심각 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의 소수문화에 대한 공공지원은 문화민주주의 문화정책의 방향에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할 사항이다. 문화 지원에 대한 역사가 깊은 독일에 비해 우리의 문화정책은 다양성, 비주 류, 소수문화에 대한 지원 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3) 민간의 지원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문화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에 따라 독일에서는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은 반면, 민간지원과 자체 수입은 현저히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예술기관의 재정 자 립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의 민간 기부금 유치와 마케팅 방안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 다. 독일의 예술기관이 점차 공적지원의 의존 비중을 줄이고 재원 조성을 다양화하여 민간지원 을 더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었다(곽정연, 2016: 16). 왜냐하면 독일 통일 이후 공적 지워은 축소되고,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계속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지원의 중요성 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Schmidt, 2012: 63).

민간지원은 기업, 민간재단, 개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대가성 없는 지원을 기부 Spenden라 고 하고, 대가성 있는 지원을 협찬 Sponsoring이라고 하고 있다. 기부는 대가성이 없이 이루어 지지만 기부자는 보통 위신과 이미지에 관계된 비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기부하게 된다 (Höhne, 2009: 211).

하지만 독일의 민간지원은 전체 문화예산의 약7-8%정도를 차지할 뿐이며(Höhne, 2009: 198), 민간극장에 대한 민간지원은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고, 그나마도 경기(景 氣)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Vorwerk, 2012: 13).

결국, 독일도 문화에 대한 민간지원이 취약한 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여 공공 재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바탕으로 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2. 한국의 전통공연예술단체 지원 정책

1)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제도적 기반

한국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제는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시설, 국가적·세계적 유산가치가 있 는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통공연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독립적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제9조, 「문화기본법」제9조 제1목의 '전통문화'10,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11)의 전통문화예술 및 공연의 국악 등 언급이나 유사한 개념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공연예술 독립적 차원이라기보다 문화예술, 공연예술 혹은 문화재로서 보존, 진흥, 발전관련 제도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김규원, 2016: 43).12)

최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전통공연예술은 무형문화재 차 원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전승자에게 만의 지 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전통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2) 전통공연예술단체 정책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지원 조직 및 그 역할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 예술과와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연전통예술과의 주요 업무는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사항, 무대예술 전문 인의 양성,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 전통예술 의 원형보존·개발 및 보급, 대중화·산업화·세계화, 공연예술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국악연구실, 기획관리과, 장악과, 국악진흥과로 나눠 관장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5).

(2) 공공지원예산 현황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정부재정 대비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재정지출규모는 5조 6,971억 원으로 1.42%에 해당되며 타 분야 재원 대비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문화예술 분야는 1조 6,09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 증가하였

¹⁰⁾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¹¹⁾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2목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¹²⁾ 사실 전통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입법은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이윤경(2014)는 '「전통국 악진흥법」제정, 왜 필요한가?'토론회에서 전통문화예술관련 진흥법 입법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열 거하고 있다. ①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5, 고흥길의원등, 폐기), ② 전통공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06, 박찬숙의원등, 폐기), ③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2007, 강혜숙의원등, 폐기), ④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2009, 김을동의원등, 폐기), 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0, 황우여의원등, 폐기), ⑥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3, 김광림의원등), ⑦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2.11, 조해진의원등), ⑧ 전통국악진흥법안 (2013.11, 강동원의원 등). 하지만, 여전히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으며, 주로 국민 체감형 문화프로그램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었다.

전통공연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은 114.1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2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립국악원 운영에 대한 사업금액 증액으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세부 항목인 아리랑 브랜드 개발과 아리랑 해외홍보는 2017년도 예산이 0원인 사업인 데, 콘텐츠 세계화에 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통문화 진흥에 대한 예산에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핵심인 예산규모는 절대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의 문화부문 예 산 중 일반회계예산의 점유비울은 낮지 않으나, 국민 1인당 문화예산은 문화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문화선진국은 문화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시설투자 수요가 적으며, 지방정부나 기업이 문화재정을 많이 확보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투자부터 시급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문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문화재정의 규모도 작은 편이다. 그동 안 우리나라 문화예산은 1980년대 0.3%였으나 2000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 전체 예산 대비 1% 로, 짧은 기간에 늘어났지만 절대액수가 많지 않아 만성적인 재정부족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 다. 분야별 예산구조도 정책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단위의 문화재정도 큰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규모는 작은 편이다. 특히 지역 의 문화예술사업은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 부는 지원을 줄여가는 추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빈약으로 획기적인 지역문 화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간 재정격차 때문에 생기는 문화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이흥 재. 2014: 104).

(3) 민간지원 현황

기업은 단순히 예술단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 가치(Corporate Value)를 높이 는 전략적 활동으로써 문화예술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1994년 전경련을 비롯한 주요 경 제단체의 발의로 한국메세나협회가 창립하였으며, 기업 회원 기반의 비영리사단법인이다.13) 또한 기업지원 이외에 비영리법인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의해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민 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686개사 중 120개사가 2016년 문화예술 지원 실적이 있었다. 지원 실적에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회·심포지엄 등의 개최, 문화예술 활동 관련 단체 및 개인에 자금·인력·현물·장소·기술 등의 지원, 문화예술분야와 복지·교육·환경 분야 등을 연계한 복합 프로그램, 문화예술 지원 및 활용을 통한 마케팅 활동, 그 외 문화예술 지원 이라고 여겨지는 활동, 기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탁한 조건부기부금을 포함한다.

¹³⁾ 한국메세나협회, https://www.mecenat.or.kr

2016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총 지원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202,581백만원, 1,463건으로 집 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지원금액 12.2% 상승했고, 지원건수는 6.7%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원금 절반 이상이 인프라에 지원되어 있어 지원 금액이 증가한 반면,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업 지원 중 국악·전통예술(4.8%)에 대한 지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2016 한국 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2016: 69), 기업 지원이 다양한 활동에 지원되기보다 특정 장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통예술에 대한 기업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자체수입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2016)의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시장의 규모는 공연시설기준으로 공연시설 수 1,026개, 종사자수 9,382명, 관객 수 30,468,719명, 총 수입액 약 1조 51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약 3,520억 원(33.5%), 공공지원금은 약 5,828억 원(55.4%), 기타수입은 약 354억 원(3.4%), 기부·후원금은 약 169억 원(1.6%), 전년도 이월금은 약 643억 원(6.1%)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이 중 민간공연예술단체의 전통공연예술 유료관객비중은 9.0%에 불과하며, 평균티켓가격 3,728원으로 조사되어, 자체 수입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간공연예술단체의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1-10억 미만(38.9%)과 5,000만원 미만(37.5%), 5,000-1억원 미만(21.6%)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전통공연예술에 해당하는 단체의 재정 규모는 5,000만원 미만(37.0%), 1-10억 미만(36.7%), 5,000-1억원 미만(20.1%) 순으로 나타나 타공연예술 분야보다 재정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¹⁴⁾

결국, 전통공연예술에서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부분은 매우 크나, 열악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몇몇 단체만 티켓 판매 수입을 올리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는 부족재원을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야별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전통공연예술의 인프라 현황

(1) 지역 분포

'2015 국악연감'에 따르면 전통공연 인프라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매우 크며 현재 전통공

¹⁴⁾ 반면, '201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따르면, 예술법인 및 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통예술이 72.1%, 서양음악이 64.7%, 연극이 46.9%, 무용이 29.9%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필자의 판단에는 전통예술의 실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통예술의 지출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통계적 수치로 판단된다.

연 관련 공공단체는 서울(13)·전북(16)·전남(10)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서울(200)·경기(110)·경남(4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를 전달하는 전진기지이면서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창조공가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의 랜드마크이면서 문화복지를 상징하는 바가 크다(현대용, 윤인주, 2015: 224). 이에 문화관광 부는 1992년 전북남원에 국립민속국악원을 개원하는 등 지방과 균형 있는 국악발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지역 외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통공연문화예술 혜택을 적 게 받고 있으며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인프라 균형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인력양성

'전통공연예술 공급중심 중장기발전 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인력양성 지원에 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원'만 있을 뿐이었다. 또한, 전통공연예술 관련 학 과 및 전공이 있는 중학교는 서울, 부산, 경기, 전북에만 소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140).

2) 전통공연예술의 보존·전승 및 창작 현황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 사업에 관해서는 대부분 문화재청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 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은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비록 국립극장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창작 및 개발 사업은 모든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창작 지 원에 있어서는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 여 공연 레퍼토리를 육성하였는데, 2017년에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전통연희 작품을 공모 하여 창작 연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공모방식은 공모의 목적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가 보다 자발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통의 발전과 진화에 대한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전통공연예술의 국제교류 현황

전통공연예술은 타 예술분야에 비해 국제교류가 많은 부분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아트마 켓(PAMS, Perporming Arts Market in Seoul)가 있는데, 한국공연예술 작품들의 유통과 해외진 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전통공연예술분야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전체 선정 작품건수 대비 전통공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13	29	18	16	15	13	13	13	10	10
전통	3	4	5	2	5	4	4	6	5	3
비율(%)	23.1	13.8	27.8	12.5	33.3	30.8	30.8	46.2	50.0	30.0

〈표 2〉 서울아트마켓 전통공연예술 관련 선정 작품 건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의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각 기관은 모두 국제교류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에 전통예술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기관, 페스티벌, 마켓, 개인, 에이전시 등 다양한 대상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4) 전통공연예술의 부정적 악순환

전통공연예술의 경우, 위의 현황과 더불어 부정적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 2014년 행사별 직접 관람률에 대해 대중음악(연평균 3.44회)에 비해 전통예술(연평균 1.60회)은 낮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도 적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김규원, 2016: 134-136).

문화예술관련 전통예술관람률과 지출이 적은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무료로 공연되고 있는 전통공연예술로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료공연에도 관심을 갖도록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전통공연예술이 콘텐츠 부족이다. 독일의 사례로 볼 때 전통예술의 보존과 발전은 탈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연방주의로 인해 지방문화와 전통을 간직 한 축제가 많다. 이러한 독특한 전통예술 콘텐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과 확연히 다른 감 동을 준다. 전통예술을 콘텐츠로서 활용하는 것은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 전통공연예술 기형적 산업구조와 자생력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전통공연예술단체는 기획사 형태가 아닌 단체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가,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과 기획공연을 중심으로 공연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59).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연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저조하여, 유료관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 경영 시스템이 전통공연예술 분야에 도입되지 않아 단체 성장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 전통공연 분야를 예술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전문 매니지먼트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의 기업뿐이며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 다. 결국, 전통예술 공연시장은 유료 관객이 거의 없으므로 공연 역시 공공지원을 받아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무료공연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로 관객들이 유료 공연 에는 잘 참석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료 공연이라 할지라도 공연티켓 가격이 저렴한 국공립단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티켓 가격을 국공립단체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정배, 2015: 778). 독일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공공지 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간단체들의 자립도가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사점

결국 현재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단체, 특히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는 위의 악순환을 겪고 있어 민간단체를 유지·발전,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종국에 가서는 외부 지원을 배제한 공연 티켓 수입이 차기 작품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 환의 구조가 형성되어 문화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독일의 문화정책에 서 그 시사점을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문화정책은 보존 및 보호와 지원 및 촉진이 이원화되어 문화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5)(안정오, 2011: 83). 이러한 이워화된 문화정책과 문화 연방제는 예술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주었고, 독일은 지방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문화가 발달되었으며 지방마다 독특한 문화 가 이어져 내려와 전통이 살아있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비록 독일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통공연예술 분야에서 독일의 문화정책을 통하여 얻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 는 반면 반대로 지원과 촉진을 통하여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다양성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교류지원과 소수문화지원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 형문화재 등을 통하여 원형을 단순히 보존하고 보호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대중성이 낮아 정부의 지원 없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독일 과 같이 수많은 공연장 인프라를 갖추고 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민간단체가 예술의 자율성을 갖고 각 지역별 고유한 전통공연예술을 보전 및 계승, 변화 및 발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¹⁵⁾ 보존 및 보호는 주로 엘리트 예술가에 의하여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문화의 민주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지원과 촉진은 아마추어—때로는 체계를 갖추어 전문가로 전환되기도 한 다 들과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문화민 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V.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전통공연예술 지원 방안

1.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민간전통공연단체 지원 구조에 있어 정부가 지원하되, 모든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방향성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각층, 시민사회, 시장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분야도 거버넌스형태로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기 형성 단계로서 보완점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거버넌스 주요 참여 기관은 국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과는 전통예술진흥정책 제안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조정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의사 결정 단계에 참여시켜 의견을 조정 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국악협회는 정책의 문제점과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통공연예술인 대부분은 국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악협회는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및 국립국악원의 위계적이고 정부 중심적인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위계적인 구조에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 전반을 다루고 있어 전통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참여는 상당히 한정적이다. 국악협회는 거버넌스 참여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대상자인데 산하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창범, 염영배, 2013: 9).

따라서 지방분권제 문화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과 같이 정부 주도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협력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통공연문화예술에 맞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며, 거버넌스가 허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층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 점은 어떤 집단이나 관리자가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대상자(집단)들을 지휘하고통솔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이 직접 스스로 질서를 창출하는 '자기조직화'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다(서은희, 2008: 158). 따라서 전통공연문화예술 거버넌스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각 대상자(집단)들에게 자기 조직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이에 각 참여집단들이 거버넌스 구조 하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전통공연 예술의 보전, 발전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 등에서는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문인력 양성과 보호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전통공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주·작곡· 이론·연출·평론 이외에도 기획·홍보·마케팅·디자인에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가 요구된다. 즉 전통공연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자·연출자·마케터 등이 필요한 것이다(백민기, 2010: 69).

현재 전통예술인 양성과정에 전통예술 관련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이 있 다. 이러한 정규과정에서는 국악, 한국무용, 전통연희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이론과 실기를 중심으로 공연을 펼치는 등 무대경험을 쌓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예술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둔 과정으로 전통예술의 현재 상황과 산업화를 위한 미래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박금비, 2012: 98). 이러한 교육과정은 우수한 예술가 만 양성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전공자들도 전문 실무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통예 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제약한다.

전통예술인의 양성은 예술가를 키워내는 1차적인 양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확장시킬 수 있 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전통예술이 문화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전통공연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실무자 즉, 기획자·연출자 등의 전문 인력이 다수 필요 하다. 전통예술의 대중성 확보에 있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전문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기본임을 다시 한번 견지해야 한다(백민기, 2010: 69-70). 따라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 설립에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민주주의 역사가 깊고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 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전통공연예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 인력의 사회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험법」을 살펴보면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이며, 어떠한 예술활동을 참여할 때만 매우 적은 수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다른 차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자영업 직종 코드와 장르의 구분이 필요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직 종과 자영업 예술인을 구분하여 예술인의 사회보험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현재 신진예술가는 사회보험 가입이 힘든 구조이다. 연극의 경우 예술인 경력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기존 작품 경력이 3편 이상 존재해야 하는데, 1번째, 2번째 작품 시에는 사회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3년 내의 경력 활동만 인정해 주고 있어 타 업종에 종사하다 공연에 복귀해도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보호도 중요한 시점이 다. 따라서 신진예술인을 위한 특혜 제도를 강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16 또한, 사회보험가 입을 위한 경력인증제도와 현행 예술인 경력 인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¹⁶⁾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술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게 일정기간의 임시 예술경력 인증기간을 수여하 는 방식이다. 신진예술인에 대한 경력 인증면제제도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활용될 수도 있다. 이는 창작지원기금의 선불 지급특성상 신진예술인 특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순히 연극학과를 졸업하며 예술인이 될 의지가 없지만 예술인 경력인증특례를 통해 창작지 원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경력단절예술인의 부정수급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문이 외, 2016: 444).

3.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의 확보

유용한 콘텐츠의 발굴을 위해서는 잘 정리되고 보호된 원래의 전통예술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과거의 전통과 유산을 통해서 새로운 전통예술의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제작, 활용,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금비, 2012: 91).

독일은 소수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연 스럽게 소수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들에 의한 전통의 재해석과 발전을 일 으킬 수도 있다. 특히 이는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시민에게 비주류, 특히 전통공연예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이해시킬 수 없으므로 문화 편중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비주류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과의 함의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민간단체는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연의 대부분은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무료나 저가로 공연되는 등 타 장르에 비해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다.

또한 민간지원과 후원을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민간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예술기관은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는 미국보다는 직접지원의 방식을 취하는 독일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곽정 연, 2016: 19). 이에 문화민주주의 문화정책이 발달한 독일의 정책현황을 토대로 공공지원 비율이 낮고 재정적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굿(Good)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집권제인 우리나라와 연방주의인 독일은 국가 운영체제부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문화 연방제는 각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예술을 발달하게 했다. 이에 지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예술에 대한 보존 및 보호와 동시에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 이 필요하다. 물론 현대화.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점차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적위주의 정책이다. 따라서 관람욕구를 불 러일으키는 콘텐츠의 개발,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포괄하는 세계적 콘텐츠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공연예술단체나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 도록 하고 이들의 지원을 통한 전통의 보전·계승과 더불어 발전이 도모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 단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통 공연예술분야의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기획 등의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조직 운 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영교육 프로그램이 마련과 인력양성이 추진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일반 예술가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과 연구생활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예술가 즉, 아티스트만 양성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문화산업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자·연출자 등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무 관련 전문 인력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역시도 중요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국내 민간공연예술단체가 문화민주주의와 어떠한 관련 성을 논하고, 전통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독일의 문화정책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독일의 전통공연예술분야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 시적인 문화정책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논거에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는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 독일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여 이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할 때, 향후 문화 각 부문에 보다 세부적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실무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현업에서의 의견을 포함하는 등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편중 현상을 지양하며, 다문화, 지역문화, 소수문화를 존중하고 이 에 대한 지원을 지향한다. 지방의 다양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문화정책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복 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향후 각 분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실증적인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

량적 연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다양화 발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정연·조수진·최미세. (2015). 독일 예술경영과 문화민주주의-그립스 극장을 중심으로. 「독일 언어문학」, 70: 377-404.
- 곽정연. (2016). 독일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의 현황. 「독어독문학」, 24(1): 1-25.
- 곽정연·최미세·조수진. (2017). 「문화민주주의 : 독일어권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서울: 글로벌 콘텐츠.
- 김경욱. (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6(2): 31-53.
- 김규원. (2016). 「전통 공연예술 공급중심 중장기발전 방안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명호. (2016). 「공공예산지원이 전통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경대학교.
- 김화임. (2015).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 :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1: 141-161.
- 김화임. (2016).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노문이·현택수·이정서. (2016).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440-448.
- 박금비. (2012). 「전통예술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문희. (2002). 「공연예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 -국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정배. (2015). 전통공연예술 공공지원에 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5(05): 777-779.
- 백민기. (2010). 「예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서순복. (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3-44.
- 서은희. (2008).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한국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 이미재. (2015).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5(1): 3-26.

안정오. (2011). 독일의 문화정책-베를린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59-88.

이재인. (2015). 유럽연합과 독일의 문화와 문화정책. 「독일언어문학」, 67: 109-133.

이흥재. (2014). 「문화정책론」. 서울: 박영사.

임상오. (2006). 유럽의 예술가 지원정책과 시사점. 「유럽연구」, 24: 365-368.

용호성. (2010).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재원조성. 「예술경영연구」, 17: 5-30.

전병태. (2011). 예술의 자생력 강화 방안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 구워」.

주창범·염영배. (2013).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정책의 정책지향성 분석: 자생력 확보와 사업대 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4): 1075-1093.

현대용·윤인주. (2015). DEA를 활용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223-239.

국립국악원. (2015). 「2015 국악연감」.

문화체육관광부.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201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한국메세나협회. (2016). 「2016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전통공연예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Schmidt, Thomas. (2012). Theatermanagement: Eine Einführung. Heidelberg.

Höhne, Steffen. (2009). Kunst-und Kulturmanagement: Eine Einführung. Paderborn.

Klein, Armin & Heinrichs, Werner. (2001). Kulturmanagement von A-Z. 600 Begriffe für Studium und Praxis. München.

Vorwerk, Christopher. (2012). Qualität im Theater: Anforderungssysteme im öffentlichen Deutschen Theater und ihr Management. Heidelberg.

국세청. www.nts.go.kr.

한국메세나협회. https://www.mecenat.or.kr/.

독일 문화위원회. www.kulturrat.de.

Kulturpolitische Gesellschaft. (문화정치 단체). www.kupoge.de.

접수일(2018년 07월 02일) 수정일(2018년 07월 31일) 게재확정일(2018년 08월 06일)

〈국문초록〉

민간전통공연예술단체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문화민주주의 과점에서 독일 문화정책과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이에 따라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기업, 민간단체는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연의 대부분은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무료나 저가로 공연되는 등 타 장르에 비해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국내 민간공연예술단체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독일의 문화정책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집권제인 우리나라와 연방주의인 독일은 국가 운영체제부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문화 연방제는 각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예술을 발달하게 했다. 이에 지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하고지원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전통예술에 대한 보존 및 보호와 동시에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물론 현대화,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점차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적위주의 정책이다. 따라서 관람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의 개발,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포괄하는 세계적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단체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일반 예술가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과 연구생활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예술가 즉, 아티스트만 양성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문화산업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자·연출자 등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국악, 전통무용, 전통공연, 문화예술정책, 문화민주주의